삶 만족도, 연령낮고 소득 높을수록 ↑… 4인가구 최고

문체부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삶의 만족도 평균 6.4점

워라밸 이룰수록 만족↑

삶 관련 가장 큰 걱정거리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4점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이 이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7.7점)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인 가구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문체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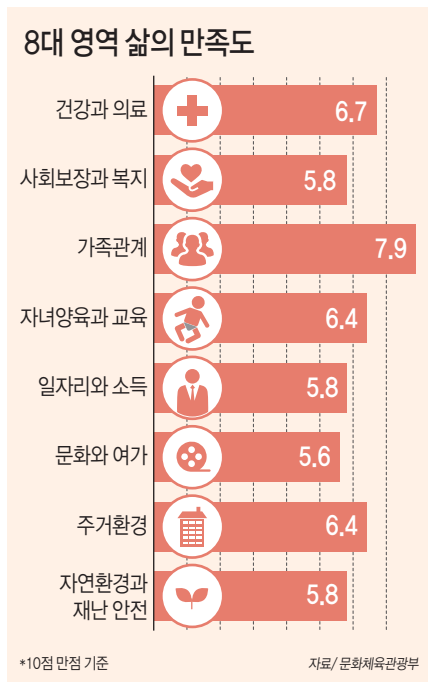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삶의 만족도와 관심사 등을 조사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연령별로 19~29세가 6.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6점, 40대가 6.4점, 50대가 6.3점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5.9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으로 4인 가구의 6.6점, 5인 이상 가구의 6.3점보다 훨씬 낮았고, 2인 가구의 6.2점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구 구성원과 관련해서도 1인 가구는 1세대(부부) 가구 6.2점, 2세대(부부 + 자녀) 가구 6.5점, 3세대(부모 + 부부 + 자녀) 가구 6.6점보다 만족도가 낮았으며 가족 구성원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 분석해보면 월 100만 원 미만 소득층은 5.5점으로 300만~399만 원 소득층(6.3점), 600만~699만 원 소득층(7.2점)보다 각각 0.8점, 1.7점이 낮아 가구소득과 삶의 질 만족도는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가 6.2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정도가 8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7.7점으로 종합 평균 6.4점보다 1.3점 높았고, 2점 이하라고 응답한 국민의 평균점인 2.8점보다 월등히 높아, '일과 생활의 균형'과 '삶의 만족도'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삶의 질 만족도가 높은 부문은 가족관계(7.9점), 건강·의료(6.7점), 자녀양육·교육, 주거환경(이상 6.4점) 순이었으며, 일자리·소득, 사회보장·복지, 자연환경·재난안전(이상 5.8점), 문화·여가생활(5.6점) 만족도는 평균점을 밑돌았다.

건강·의료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았고, 일자리·소득은 왕성한 경제활동 계층인 30~40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50대 이상의 만족도가 낮았다.

삶과 관련해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건강·의료, 일자리·소득 등이었다.

국민들은 건강·의료(57.2%), 일자리·소득(49.4%)을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회보장·복지(30.2%), 자녀양육·교육(28.5%), 자연환경·재난안전(27.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건강·의료는 60대 이상(71.7%), 일자리·소득은 19~29세(72.9%)에서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부문도 일자리·소득(36.3%)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사회보장·복지(30.4%), 건강·의료(10.4%)를 꼽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삶의 질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앞으로 매년 동일한 문항으로 조사해 국민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9세 이상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방식(Random Digit Dialing, RDD)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p이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강남역 침수 원인 '기형 하수관' 조정 완료

서울시 '역경사 하수관' 재배치

폐쇄됐던 8번 출입구 개통

서울시가 강남역 일대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형 하수관로를 바로잡았다.

서울시는 강남역 근처의 침수 원인인 '역 경사 하수관'의 위치를 조정해 빗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하고, 공사로 폐쇄됐던 강남역 8번 출입구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강남역 지하상가 상부에 설치된 역 경사 하수관로는 상가 구조물로 인해 발생한 1.47m의 턱 때문에 통수 능력이 떨어져 강남역 일대 침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이에 시는 강남역 지하상가 통로와 8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재배치해 공간을 확보하고, 폭 2m, 높이 3m, 길이 71m의 관로를 설치, 빗물이 정상적으로 흐르도록 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강남역 일대 역경사 하수관로 개선 후 모습. /서울시

시는 하수관로 개선 외에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배수개선 대책 사업을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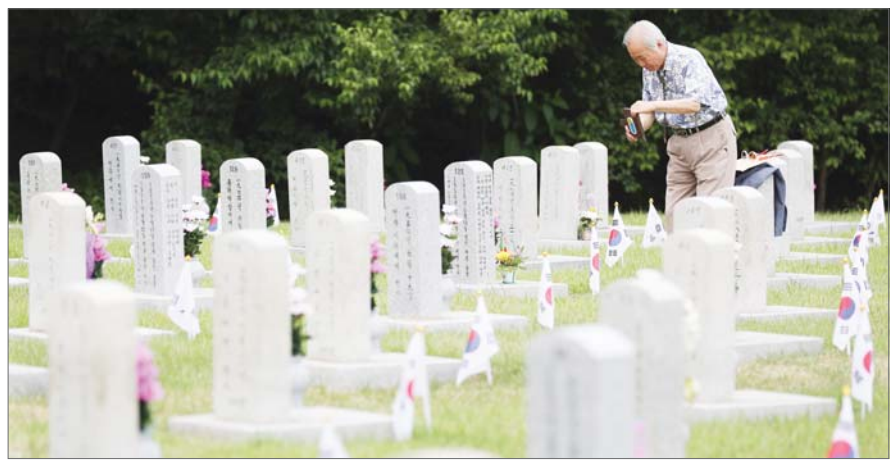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 지대가 낮은 서초동 우성아파트, 신동아아파트 일대 빗물을 처리하기 위해 용허리공원 빗물저조류를 설치했다.

시간당 95mm의 강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까지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공사는 지대가 높은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이 저지대인 강남역 주변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대역 인근에서 고속터미널 주변 반포천까지 터널을 뚫어 직접 배수되도록 유역을 분리하는 공사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강남역 일대의 침수피해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설치, 역경사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우선 완료했다"며 "반포천 유역분리 터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부모님, 제가 사진 찍어드릴게요" 제63회 현충일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이원석 할아버지(82)가 경찰묘역에 모셔진 아버지, 어머니의 묘비 앞에 헌화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재성 씨는 개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6·25 전쟁이 발생한 1950년 6월 25일 전사했다. 어머니 생일을 맞아 현충원을 찾은 이 할아버지는 현충일 당일에도 부모님 묘소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부순환로 월곡IC 교통정체 해소나선다

진출연결로 추가 설치

서울시는 내부순환로 월곡IC 주변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월곡IC~화랑로 성북트리즘 앞 평면교차로에 진출연결로를 추가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내부순환로 월곡IC는 정릉·태릉 방면과 하월곡IC를 이용해 북부간선도로로 진출하는 차량이 몰려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진출연결로 설계를 마치고 2019년 착공해 202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진출연결로가 추가 설치되면 정릉방면 진출차량이 내부순환로 하부도로에서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진출연결로가 설치되면 종암사거리~월곡역입구 교차로 15.2km/h, 월곡역교차로~동덕여대 방향 3.7km/h, 월곡역교차로~성북트리즘 빌딩 교차로 2.6km/h 등 통행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현정 기자

50 플러스 세대 위한 '일자리 매칭데이'

서울시 합격자 활동비 지원

중장년층과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를 연결해주는 취업 지원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4~5일 은평구 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50+세대와 비영리 공익단체,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는 '50+ 펠로우십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펠로우는 정식 고용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나 프로젝트에 유급으로 채용되는 것을 뜻한다. 현재 미국 등에서는 펠로우십을 통해 중장년층이 비영리단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앙코르 커리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다.

펠로우십 자원자들은 참여기관과 기업 담당자와 일대일 상담, 펠로우십 코디네이터와 직무 상담 등을 받게 된다.

4일 행사에는 루트에너지 외 43개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 펠로우십 지원자 56명이 참석해 핵심 사업, 업무, 구성원 등에 대한 소개와 상담 시간을 가진다.

5일에는 꿈터 작은 도서관 외 15개 기관과 비영리 공익단체 펠로우십 지원자 32명이 참석해 참여 단체 소개와 일대일 상담, 네트워크 파티 등을 진행한다.

펠로우십 매칭데이 현장 모습. /서울시

상담을 받은 지원자들은 지원 기업과 희망 직무를 선택하게 되며, 이후 최종 면접을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합격자는 앙코리커리어 교육, 직무역량 강화 등 35시간의 통합 직무교육을 받은 후 서울시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5개월(월 57시간) 동안 활동하게 된다. 참가자는 월 최대 52만5020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현정 기자

정비구역 전수조사… "문제시 즉각 조치"

용산 상가건물 붕괴 후속대책

309곳 순차적 합동조사 실시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관리처분 인가가 나지 않은 309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발생한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182개 지역을 우선 점검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전체 309개소에 대한 전수합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3일 사건발생접수 후 긴급구조통제단을 현장에 파견해 인명구조활동을 벌였다. 중장비로 추가 매몰자에 대한 현장수색을 진행,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명령을 내렸다.

시가 전문가를 파견해 인근 11개동에 대해 현장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3개동에서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용산구와 함께 붕괴 건물을 포함한 접근 금지 3개동 거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다.

시가 구조대와 장비, 인명구조견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추가 매몰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물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는 등 사업 주체와 협의해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우리 구청 소식

종로구, 박물관·미술관 16곳서 '인문학 탐방'

서울 종로구는 '종로 박물관·미술관 인문학 탐방'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문학 탐방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방문해 기관별 특색 있는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구에 위치한 16곳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참여하며, 각 기관의 학예사와 큐레이터가 전시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포구, 연트럴파크서 '건전한 음주문화 캠페인'

서울 마포구는 6월 금요일마다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에서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경의선숲길공원은 지난 2016년 완공 이후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으로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서울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다.

/김현정 기자